

네덜란드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

[The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

2024.05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동 보고서는 2024년 4월 1일에 네덜란드 정부가 발표한
네덜란드 안정화 프로그램(*The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하에스더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1	전반적인 정책 체계 및 목표	1
	가.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1
	나. 국가 예산규정	2
	다. 봄각서의 의사결정	3
2	경제 전망	4
	가. 주요 경제전망	4
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6
4	주요 재정투자	10
5	2024년 봄각서와 안정화 프로그램 전망치의 차이	12

요 약 SUMMARY

-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4월 1일에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¹⁾를 발표
 - ※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 유로지역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경제·재정전망, 중기재정목표(MTO), 주요 재정정책 설명 등을 포함한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1%에서 2025년 1.6%로 증가할 전망
- (재정 전망)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 2025년에는 -2.1%로 전망되며, EMU의 재정적자 기준인 3% 이하를 유지하는 수준
 - 일반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8%에서 2028년에 5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EMU 기준인 60% 이하를 유지
 - 중기적으로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8년에 GDP대비 -3.2%로 전망되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에 기인
 - 2032년까지 일반정부 채무는 GDP대비 6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야심찬 투자 계획, 증가하는 이자 비용 및 고령화 비용의 결과
- (주요 재정투자) EU 이사회는 네덜란드에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 및 주택시장 투자의 중요성을 권고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교육, 주택시장, 기후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해서 이행
 - (기후전환 기금) 기후 중립적인 에너지 공급, 정의로운 기후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기후기금에 350억유로를 배정
 - (농업) 농업과 자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총 250억유로 규모의 국가 농촌지역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것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자연 복원, 질소 감소를 지원
 - (주택 건설) 정부는 연간 100,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임차인, 사회초년생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에 특히 중점
- (연합 협정) 내각은 합의된 재정 체계를 존중하면서 기후, 자연, 교육, 과학 분야를 포함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와 전환을 위한 야심찬 투자 안건을 연합 협정에서 발표
 - 정부는 호로닝언의 피해 복구 계획,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 여러 중요한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행

1)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Stabiliteitsprogramma 2024*, 2024, <https://www.rijksoverheid.nl/documenten/kamerstukken/2024/04/26/kamerbrief-stabiliteitsprogramma-2024>, 검색일자: 2024.5.1.

1 | 전반적인 정책 체계 및 목표

가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 현재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와 예방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는 재정적자가 GDP대비 3% 이하, 국가채무가 GDP대비 60%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
 -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이러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봄에 2023년 실현된 재정적자를 기반으로 과도한 재정적자가 있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
- 안정성장협약의 예방적 조치는 중기재정목표(MTO)로서 구조적 재정수지(네덜란드의 경우 0.75%)가 자국의 MTO에 수렴하도록 설정하며, 초과하는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는 매년 GDP대비 0.5% 이상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을 규정
 - 2024년 1월 1일부터 예외조항²⁾이 비활성화되어 예방적 조치를 다시 시행
 - 새로운 안정성장협약 체제로 전환하는 동안 '요구사항(matrix of requirements)'은 적용되지 않음

» EU 이사회가 네덜란드에 권고한 2024년 국가별 권고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음³⁾

-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중기적으로 EMU 재정적자와 부채를 목표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적자를 최소 GDP대비 0.3%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2024년 국내 재정지출 명목 증가율을 2023년 대비 최대 3.5%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 (에너지지원 조치 축소) 임시 에너지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지출절감분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도록 권고
- (정부투자 유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부 투자를 유지하고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
- (중기 재정정책) 2024년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및 개혁과 함께 중기적으로 신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도록 권고

» 이 권고사항은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둔화되어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으며, 회원국들은 이후 2023년 말까지 개별 국가의 재정지출에 예외조항을 시행하는 데 합의

3) Europese Commissie. (2023, 24 mei).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the 2023 National Reform Programme of the Netherlands and delivering a Council opinion on the 2023 Stability Programme of the Netherlands.

» 현재 네덜란드의 예산시스템은 추세기반 예산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음

- 내각이 1994년부터 사용해 온 추세기반 예산 모델은 경기 변동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음
- 공공재정의 적절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임기 초기에 합의된 지출 한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
- 재정수입 측면과 실업 및 사회보장 지출에는 자동안정화 원칙이 적용됨
 - 경기호황 시에는 잉여분이 재정 균형에 도움이 되고, 경기침체 시에는 적자가 발생

» 정부는 초기 예산각서(Initial Memorandum)에 규정된 대로 의사결정 시 예산 규정을 준수하며, 여기에는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고 연도별 지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한 소통을 포함

- 내각은 매년 봄에 예산과 수입의 주요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며, 구매력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8월 완료될 예정
- 지출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출이 내각 임기 동안 사전 합의된 지출 한도 및 체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이는 설정된 지출 한도 및 체계 내에서 처리되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보상되지 않음

» 봄각서의 의사결정은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통합됨

-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이러한 봄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여 EMU 재정수지와 EMU 부채에 대한 최신 추정치를 제공
 - 이전에는 안정화 프로그램에 봄 의사결정에 앞서 발표되었던 중앙정책기획국(CPB)의 중앙경제계획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음
- 봄각서의 의사결정이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통합되는 혁신은 국가예산 과정의 조정과 병행하여 진행
- 2022년부터 봄각서는 다년간의 예산 계획을 포함하며, 현재 연도의 예산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의사결정을 제시
- 봄각서에는 EMU 재정수지와 EMU 부채에 대한 재무부의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는 중앙정책기획국의 추정치와 상이
 - 안정화 프로그램은 재무부와 중앙정책기획국 두 추정치 간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

2 | 경제 전망

가 | 주요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지난 1년간의 경기침체 이후 2024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어 2024년과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1%, 1.6%로 소폭 반등할 전망

- 2024년과 2025년의 인플레이션 감소 및 실질임금 상승은 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의 증가가 정부의 확장정책과 함께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데 기여

〈 표 1 〉 주요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실질 GDP 성장률	0.1	1.1	1.6	1.4	1.2	1.1
명목 GDP 성장률	7.8	5.1	4.0	4.1	3.8	3.7
GDP 주요 구성요소						
민간소비	0.4	2.7	2.4	1.9	1.8	1.9
정부소비	2.6	3.2	0.9	1.4	2.5	1.3
총고정자본형성	1.7	-2.8	2.5	1.6	0.8	2.5
수출	-1.2	0.6	2.5	2.2	2.1	2.0
수입	-0.7	1.1	3.0	2.6	2.9	3.1
GDP 디플레이터	7.7	4.0	2.3	2.6	2.6	2.5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	4.1	2.7	2.5	2.2	2.2	2.2
고용률	1.5	0.6	0.2	0.0	-0.1	-0.2
실업률	3.5	3.7	3.9	4.2	4.4	4.6

자료: 네덜란드 정부,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근원 인플레이션 감소로 인해 2024년 2.9%, 2025년 2.8%로 전망

- 에너지 가격은 가격 상한선의 단계적 철폐에도 불구하고 2023년보다 2024년에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에 하방압력을 가하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2024년에는 구매력이 회복돼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인 2021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전망
 - 구매력 회복은 인플레이션 감소, 임금 급등, 정부의 구매력 대책 등에 기인
- 최근 몇 년간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았으나 2024년 임금은 6% 급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4년에는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임금 목표 정책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성인과 아동의 수가 감소할 것임

» (기업투자) 기업투자는 2024년 GDP 성장에 -2.8%로 마이너스(-) 기여한 뒤 2025년 2.5%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추정

» (수출) 네덜란드 수출은 2023년 위축 이후 2024년 0.6%에서 2025년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계 무역도 다시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글로벌 GDP 성장과 일치할 것임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4년 3.7%, 2025년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균형 실업률인 5.3%보다 훨씬 낮은 수준

- 2024년과 2025년에 노동 수요는 노동 공급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시장은 조정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인력부족 현상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 노동 공급 및 노동생산성의 제한적인 성장으로 인해 노동 시장은 이전보다 더 긴축(tight)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3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재정수지) 202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0.3% 로 전년 안정화 프로그램(-3.0%)의 전망치보다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기인

- 지출 미집행: 정부 지출이 계획보다 적었던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일부 프로그램 실행의 지연과 투자 지연,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에 기인
- 지방정부의 잉여: 지방정부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했음을 의미
- 조세수입 증가: 경제 성장과 정책 변경(에너지세 감면 철회, 예상보다 높은 배당세)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입을 기록
 -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이윤 증가와 계약임금 인상이 각각 법인세,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 기여함

» 그러나 2024년 이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으며, 2024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2.0% 로 전망되며, 2028년 -3.2% 로 점진적으로 악화될 전망

- 2024년과 2025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현 내각이 계속해서 투자정책과 연합 협정을 이행하기 때문
 - 정부는 야심찬 투자정책을 통해 기후, 교육, 주택 시장 등 주요 사회적 과제와 전환에 중점을 두고 미래 세대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
 - 확장적 재정정책은 EU 이사회의 국가별 권고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차 지출증가율 제한과 상충되지만 정부는 이러한 투자가 연기되면 향후 지출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공재정 악화를 수용
- 2026년에는 재정지출과 군인연금을 새로운 연금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0.7\%p$ 악화될 전망
- 향후 몇 년간 재정수지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투자 지출 증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 금리 인상과 자금조달 요구 증가로 인한 이차지출 증가에 기인

〈 그림 1 〉 네덜란드 일반정부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



주: 분홍색 선은 EU 안정성장협약 재정수지 기준 표시(GDP 대비 -3%)
 출처: 네덜란드 정부,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 2024, p.13, Figure 3.1.

» (봄각서의 의사결정) 2024년 안정성 프로그램에 2024년 봄각서의 의사결정이 처음으로 통합되어 발표

- (재정 프레임워크 및 지출) 내각은 연정 협약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의 지출 한도를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 및 수입은 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지난 해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지출이 증가했으며, 예산 규정에 따라 새 내각 기간 이후의 이자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음
 - 네덜란드의 전체적인 이자율 변화는 2024년 공공재정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최근 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이는 예산에 추가적인 여유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투자 조치)임시 내각 상태로 인해 새로운 정책에는 신중을 기함
 -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주요 과제인 흐로닝언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 작업, 아동수당 스캔들⁴⁾ 피해자 보상,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유지
 - 또한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네덜란드 반도체 산업부문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
-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스케일링업 할인(scaling-up discount)⁵⁾ 제도가 폐지되고,

4) 네덜란드 아동수당 스캔들은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이 네덜란드 주민들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한편, 아동수당 배급을 부당 청구한 사건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어도 네덜란드의 26,000여 명에 달하는 부모가 육아 수당 청구에 대해 부정 행위가 일어나거나 의심되었으나 이후 이 명령이 오류에 기인했음이 드러남

새로운 GDP 기반의 재원조달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지방정부와 합의했으며 신GDP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는 큰 폭의 일회성 보상을 받게 될 예정

- 추가로 5억유로를 투자하여 방공 및 탄약지원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 (세제 조정) 2024년 예산각서 이후 상원 표결 결과 산업 및 전력에 대한 기후대책법안 통과 실패⁶⁾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계거래제도 유지⁷⁾ 등으로 큰 세수손실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 변경으로 충당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태양광 발전 상계거래제도 유지를 위해 전기요금 상계분을 예정보다 적게 인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

»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5%에서 2024년 46.8%로 소폭 증가하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2028년에 52.0%에 이를 전망

- 2023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6.5%로 EMU 기준인 60%와 전년 안정화 프로그램의 전망치 (48.4%)보다 낮은 수치이며, 부채 감소는 주로 높은 명목 GDP성장률(분모 효과)과 예상보다 나은 재정수지 실적때문
- 그러나 국가채무가 2024년 46.8%에서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52.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년간 예상되는 재정적자 악화때문
- 2023~2028년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여전히 EMU 기준치인 6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변화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망치와 실적치는 크게 다를 수 있음

- 2023년 안정성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2023 중앙정책기획국 전망’에서 2023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GDP대비 각각 -3.0%, 48.4%로 추정되었지만,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GDP대비 각각 -0.3%, 46.5%로 나타남
- 또한 2024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치도 수정되었음
 - 최근 통계청은 중앙정책기획국의 2024년 재정수지 전망치인 GDP대비 -2.6%를 -2.0%로 수정
- 재정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는 인구 고령화와 투자 지연, 세계경제 상황과 우크라이나 및 중동의 전쟁과 같은 요인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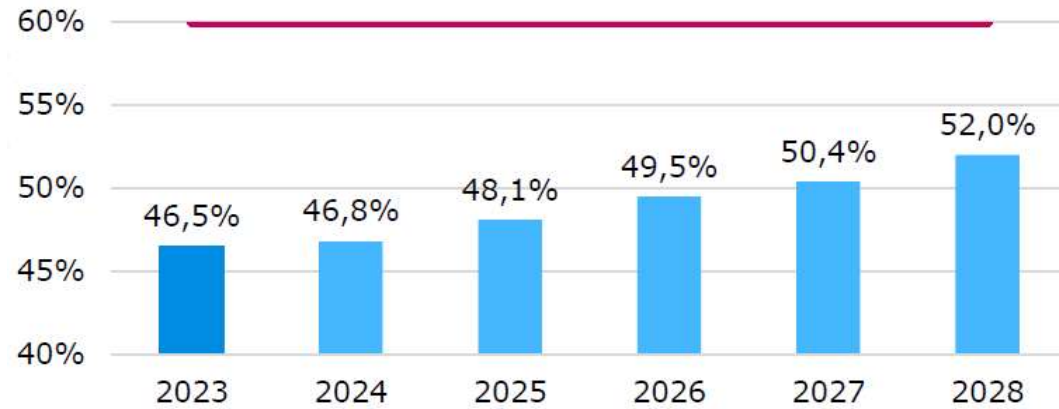
5) 스케일링업 할인(scaling-up discount)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음. 당시 정부의 생각은 큰 지방자치단체가 규모의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삭감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음. 반대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합병하거나 협력하여 더 큰 단위로 운영되면, 스케일링업 할인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음. 당시 정부는 여전히 10만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를 원했지만 그 정책 야망은 곧 포기되었음. 2020년부터 스케일업 할인이 동결되었으며, 일시 중지된 스케일링업 할인은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정당은 완전한 폐지 요구로 봄 각서에서 퇴임하는 내각은 폐지 결정.

6) 산업 및 전력에 대한 기후대책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2030년까지 구조적으로 2억 1백만유로, 부수적으로 13억유로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4월호 재정동향」, 2024.5.” 참고)

7) 상원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계거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거부했으며 세수손실은 2025년 2억 4,500만유로에서 2031년 7억 1,700만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4월호 재정동향」, 2024.5.” 참고)

〈 그림 2 〉 네덜란드 국가채무 동향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분홍색 선은 EU 안정성장협약 국가채무 기준 표시(GDP 대비 60%)
출처: 네덜란드 정부,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

〈 표 2 〉 2023~2028년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정수지	-0.3	-2.0	-2.1	-3.3	-2.6	-3.2
재정지출	43.5	44.4	45.0	45.6	45.4	45.9
재정수입	43.2	42.6	42.8	42.4	42.7	42.6
국가채무	46.5	46.8	48.1	49.5	50.4	52.0

출처: 네덜란드 정부,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

» (중기 전망) 중기적으로 2032년까지 국가채무는 GDP대비 63.5%, 재정수지는 GDP대비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야심찬 투자 계획, 증가하는 난민비용과 고령화 및 이자 비용 등의 결과

- 이러한 전망치 추계에는 봄각서의 의사결정이 포함되지 않아 봄각서 이전의 변경되지 않은 정책을 기반으로 함
 -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과 의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
 - 둘째, 중앙정책기획국은 인력 부족과 다른 투자실행 문제들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24년 이후에는 지출미집행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셋째, 기후 및 질소 정책, 국방비 및 난민 비용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
 -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간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이 증가
- 개정된 유럽 예산 규정의 예방 조치에 따라 회원국은 중기적으로 EMU 적자를 GDP의 3% 미만, EMU 부채를 GDP의 60%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충분히 신속하게 그 수준으로

전환해야 하며 미래 고령화 비용도 흡수되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중기적인 네덜란드의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안정 및 성장 협약 (SGP) 조항의 예방 부문은 아마도 네덜란드에 예산 과제를 안겨줄 것임
- 그러나 네덜란드의 실제 EMU 적자가 GDP의 3% 미만으로 유지되고 EMU 부채가 GDP의 60%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안정성장협약(SGP) 조항의 예방 조치는 구속력 있는 결과를 갖지 않음

4 | 주요 재정투자

» EU 이사회는 2023년 6월 30일 네덜란드에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 및 주택시장 투자의 중요성을 권고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교육, 주택시장, 기후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해서 이행

- (주택시장과 교육) 내각은 주택시장과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며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고자 매년 20억유로의 예산을 편성
 - (주택 건설) 정부는 연간 100,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임차인, 사회초년생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에 특히 중점
 - (교육) 교사와 학교 관리자, 고등교육 및 연구,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 보조금(10억유로)이 다시 도입
- (연구개발) 자유롭고 제약 없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50억유로를 투자
- (사회기반시설) 14개 도시개발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빌리티 펀드에 75억유로가 추가되었고 철도공사(ProRail) 및 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 네트워크의 유지관리를 위해 델타 펀드에 15억유로를 지원
- (농업) 농업과 자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총 250억유로 규모의 국가 농촌지역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것은 질소 감소, 자연 복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
- (기후전환 기금) 기후법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 기후 중립적인 에너지 공급, 정의로운 기후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기후기금(Climate Fund)에 350억유로를 배정
 - 이 기후기금은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수행: (1)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적인 에너지 공급, (2) 산업계에서의 에너지 효율 기술의 구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 (3) 건축계에서 에너지 효율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및 탄소 격리의 사용을 장려
- (빈곤퇴치) 정부는 빈곤율을 낮추고 노동부담과 자본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예를 들어, 법정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10% 이상 인상되었고, 개인이 자기소유 비상장 법인(BV)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법인세율은 15%에서 19%로 인상되었음
 - 2024년 예산안(Budget Memorandum)을 통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빈곤, 특히 어린이의 빈곤을 크게 줄이는 목표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주택 수당과 아동

관련 예산증액, 고용세 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이루어짐

- ◆ 이런 조치를 통해 2024년에는 빈곤인구가 내각 출범 초기보다 1.4%p 낮은 4.7%, 빈곤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수가 내각 초기보다 2.3%p 줄어든 4.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네덜란드의 회복 및 복구 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은 54억유로 규모의 22개 개혁과 28개 투자 프로그램로 구성**

- 초기 지출 계획의 목표 33개중에서 현재 30개가 달성되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EU에 2024년 5월 말까지 13억 유로규모의 1차 지출 계획과 2024년말까지 2차 지출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
 - 개혁과 성장 촉진 투자의 결합은 교육, 연구개발 분야의 조치와 경제의 디지털화 확대, 에너지 시장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혁과 투자를 통해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투자 재원의 26%가 디지털 전환, 55%가 녹색 전환에 사용될 예정

5 | 2024년 봄각서와 안정화 프로그램 전망치의 차이

»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중앙정책기획국의 전망치는 2024년 봄각서에 발표된 재무부의 전망치와 상이

-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의 2024~2026년 재정수지 전망치가 봄각서 전망치보다 더 개선됨
- 반면 2028년에는 안정화 프로그램의 중앙정책기획국(CPB) 재정수지 전망치가 봄각서의 재무부 전망치보다 더 악화되며, 두 전망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1. 투자 지연 및 예산 미집행분/과소지출(underutilization):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초기 몇 년 동안 당초예산 대비 과소지출과 투자 지연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에는 점차 이러한 과소 지출이 감소하고 투자 지연으로 인해 향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예상
 - 2. 법정 최저임금 인상 차이: 최저임금을 1.2% 인상하려는 계획이 봄각서에 제안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 3. 보건분야 지출절감 효과 부족: 중앙정책기획국(CPB)은 향후 몇 년 동안 보건 분야에서 계획된 지출절감 효과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예산 대비 지출절감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예측
 - 4. 난민비용 증가: 이번 봄각서에서 난민비용이 2026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5. 국가채무 전망 차이: 재무부의 2024~2028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중앙정책기획국(CPB)의 예상보다 높으며, 이는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몇 년 동안 재정수지에 대한 더 부정적인 추정의 결과
- 봄각서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지출증가율은 부처 예산 내 추정치를 다시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그 일환으로 2024년 예산이 원래 계획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년 이후로 연기되어 보다 현실적인 예산 흐름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여전히 지출전망에 대해 재무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 미집행(under-exhaustion)을 예측하고 있음
 - 과거의 높은 예산 미집행을 고려하여 재무부는 예산 추정치를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했으며, 2024년과 2025년의 지출을 특히 주의 깊게 검토했음
 - 재무부의 재정수입 추정치는 중앙정책기획국(CPB)의 추정치보다 약 20억유로 더 높지만, 이는 전체 수입의 0.4%로 비교적 작은 차이

- 재무부는 실제 현금 흐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중앙정책기획국(CPB)은 거시경제상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로 인해 재무부의 수입 추정치는 향후 몇 년 동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 표 3 〉 2024년 불각서와 안정화 프로그램의 예측 차이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4년 불각서 전망(재무부)	-2.5	-2.8	-4.0	-2.6	-3.0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 전망 (중앙정책기획국)	-2.0	-2.1	-3.3	-2.6	-3.2
차이	-0.5	-0.7	-0.7	0.0	0.2
국가채무					
2024년 불각서 전망(재무부)	47.2%	49.3%	51.4%	52.3%	53.7%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 전망 (중앙정책기획국)	46.8%	48.1%	49.5%	50.4%	52.0%
차이	0.4%	1.2%	1.9%	1.9%	1.7%

출처: 네덜란드 정부, Netherlands Stability Programme 2024